

## Exploring Children's Play in Gardening

Kim Minj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Lee Sujung\*\*  
(Municipal Janghyeon Rubensia 2nd Daycare Center)

###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ildren's play patterns in gardening. Through this, we aimed to have significance as basic research to find ways to support children's play in gardening.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From August to October 2022, a total of 15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children (9 4-year-olds, 4 5-year-olds) aged 4-5 years at J Daycare Center in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as transcribed, categorized, and analyze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Children's play patterns in gardening were 'sympathetic play', 'intuitive play', and 'imaginative play'. In the garden, where nature can be easily accessed, children shared emotional interactions and feelings with nature through peer relationships. Children encountered nature in the garden and experienced intuitive, sensory play. Children made up plants, animals, and objects related to the garden and showed their imagination. Children's playfulness was revealed in gardening, and sensitivity and curiosity about changes in nature were revealed through continuous interest in nature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nature. Gardening should be approached as a long-term, continuous experience rather than a hands-on or one-time experience.

### Key Words

Children, Garden, Gardening, Play, Play aspect

Received November 26, 2023   Revised December 28, 2023   Accepted December 29, 2023

Author : Kim Minjung, Associate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edumin@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 Lee Sujung, Director, Municipal Janghyeon Rubensia 2nd Daycare Center,  
0528daysj@naver.com

##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나는 유아 놀이 탐구

김민정\*  
(서울신학대학교)

이수정\*\*  
(시립장현루벤시아 2차 어린이집)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놀이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텃밭 가꾸기에서 유아의 놀이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갖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시립 J어린이집의 만4-5세 유아13명(만 4세 9명, 만 5세 4명)을 대상으로 총 15회 참여관찰과 면담을 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범주화한 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놀이 양상은 '교감적 놀이', '직관적 놀이', '상상적 놀이'로 나타났다.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텃밭에서 유아는 또래 관계 속에서 자연과 정서적 교류와 감정을 공유하였다. 유아는 텃밭에서 자연과 만나며 감각적으로 직관적 놀이를 경험하였다. 유아는 텃밭과 관련된 식물과 동물, 텃밭과 관련된 사물을 가작화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텃밭 가꾸기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발견되었고, 자연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이해하여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자연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호기심이 나타났다. 텃밭 가꾸기를 체험식 또는 일회적 경험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장기적·지속적 경험으로 접근해야 한다.

### 〈 주제어 〉

유아, 텃밭, 텃밭 가꾸기, 놀이, 놀이 양상

## I. 들어가는 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텃밭 활동을 홈가드닝(Home gardening)으로 전환하여 집에서 식용 채소, 관상용 화분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놓지 않으려고 하였다(정미숙, 2021). 2022년 9월 26일 질병관리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지 되면서 바깥 놀이가 점차 가능해지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행의 방안으로 바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텃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텃밭 활동은 집 주변 공터나 집안 마당에 소규모 밭을 조성하거나 식물 재배 도구를 활용하여 씨앗을 심고 가꾸며, 식물의 성장 과정을 탐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서주형, 201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물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기쁨, 보람, 감사 등을 인식하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이 도시, 아파트 등 자연체험 기회 제공이 어려운 곳에 있을 경우, 텃밭 활동은 유아를 위한 자연친화교육의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텃밭은 비교적 손쉽게 자연친화교육을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안지성·김정신·조희숙, 2011). 텃밭 활동은 구체적으로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환경친화태도, 친사회적 행동, 정서기능 등 긍정적 영향을 준다(성정민·박용한, 2016). 또한, 창의성 증진에도 효과가 있고(박미현·황희숙·황연주, 2021), 유아 인성(나눔, 배려, 존중)에도 영향을 준다(이지영·조부경, 2017).

텃밭 가꾸기는 바깥 놀이, 산책 활동, 숲 활동과 다르게 직접 기르고 양육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권영수, 2012). 텃밭에서 동식물 생명체와의 만남은 유아로 하여금 자연을 가깝게 느끼게 하고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나눔과 협력의 태도를 갖게 한다(이지영·조부경, 2017). 텃밭 가꾸기는 유아에게 흙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하고, 감각적 능력, 과학적 사고, 땅의 의미와 수확을 알게 하며, 자연계의 순환과정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한다.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적 인식과 인간관계를 길러 준다(윤구병, 2002; 임재택·하정연·조채영·노진형·홍정애·강현진·김미옥, 2000).

텃밭 가꾸기 관련 생태 연구로 주 5일제에 따른 주말교회학교 유아생태교육 프로그램개발(이정규·정희영, 2012), 생태환경문제와 교회학교 어린이신앙교육의 방향(이은성, 2018), 종교 관련 숲·생태유아교육 연구동향 분석(정희영·황세희, 2019),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조미영, 2021), 숲놀이 관련 연구 동향 분석(김민정, 2022) 등이 있으나, 유아가 주체가 된 연구는 부족하였다. 텃밭 가꾸기와 놀이 관련 연구로는 만 3세 유

아의 텃밭 놀이 활동이 식습관 및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선수민, 2022), 텃밭 가꾸기를 활용한 자연명상놀이가 만 3세 유아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서주형, 2017), 텃밭 가꾸기와 연계한 요리활동이 영아의 식습관과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강미경, 2016)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텃밭 가꾸기와 유아 놀이 관련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이 발현되는 유아 놀이 양상을 탐구하여 놀이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갖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구성한 연구문제는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놀이 양상은 어떠한가?’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텃밭 가꾸기 개념

‘텃밭’은 순수한 우리말로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텃밭은 유아에게 훌륭한 자연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실외에 있는 텃밭이 유아들에게 즐거움과 앎을 동시에 제공하는 가장 큰 놀이터이고 학습장이 되어 유아들이 자연에 대해 알게 됨과 동시에 자연을 만나게 될 때 자유롭게 뛰놀고 소리치고 노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등 유아들이 텃밭에서 흙, 식물과 함께 할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홍은주, 2003). 텃밭 가꾸기는 유아에게 바깥의 자연환경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감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유아가 날씨, 바람의 세기, 습도 등을 감각적으로 느껴 보고, 나무, 꽃, 흙, 나비, 개미, 햇빛과 그림자, 구름과 비 등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개방된 공간에서의 해방감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정서발달과 과학적 탐구능력의 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다(최민수·정영희·김정옥, 2012). 텃밭 가꾸기를 할 때는 흙과 식물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한다(강미경, 2016).

### 2. 유아의 놀이성 개념과 요소

유아의 놀이성이란 유아가 놀이할 때 나타나는 놀이에 대한 성향 또는 태도이며,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양식이다. 유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외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놀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 발달 상태에 따라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이은하, 2013). 놀이성은 유아의 특성이며,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놀이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놀이성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

분하였다. 이 중 신체적 자발성을 제외한 4가지 특성이 놀이와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이미선, 2011). 첫째, 신체적 자발성은 신체 전부 또는 신체 일부의 움직임으로 놀이 중 신체 각 부분의 협응 정도, 유연성, 민첩성 등 운동기능의 활동 정도를 나타낸다. 영유아들은 신체적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어려운 것에 도전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신체 조절 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자기수용적 놀이 활동을 반복한다(이석주, 2022).

둘째, 사회적 자발성은 유아가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함께 놀이하는 또래들과의 협력, 신체적 친밀한 접촉 여부, 주도적 놀이 활동 참여 여부 정도를 뜻한다. 놀이집단의 또래와 어울리고 배려하고 협력할 줄 알고, 유아가 또래와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 및 친밀한 접촉, 놀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들 또래 영유아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동하며 놀이하는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 자발성을 지닌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다는 책임감을 키워나간다.

셋째, 인지적 자발성은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이하며 놀잇감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영유아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놀이하게 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상상력, 창의력, 융통성 있는 사고력으로 표현된다. 유아는 놀이하면서 사물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고 여러 형태로 구성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유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정보로 활용하여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변화되어 놀이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 가고, 지속적인 놀이가 이루어지게 된다(김미숙, 2001).

넷째,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놀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감정, 기쁨, 즐거움, 성취감의 정도를 말한다. 즐거움이란 놀이하는 그 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거움의 표현은 웃기를 잘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다.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기쁨, 즐거움, 행복, 성취감의 정도이다(김미숙, 2001).

다섯째, 유머 감각은 유아가 또래와 농담을 즐기며, 재미있거나 우스운 이야기를 하며 놀이하는 것을 말한다. 유머 감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재미있는 사건들의 식별 및 인식능력, 호의적인 농담, 세련된 장난기로 정의된다. 유아는 놀이하면서 농담하는 것을 즐기거나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한다(정관순, 2011). 5가지 놀이성 요소는 유아의 놀이 과정에서 발현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시립 J어린이집은 2020년 9월에 개원하여 2022년 영유아 59명 정원으로 총 52명이 재원하고 있었다. 유아반 구성은 만 3세반, 만 4-5세반으로 총 2개반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만 4-5세 혼합연령반의 텃밭 가꾸기는 주 2-3회 오전 11시-12시에 이루어지며 날씨의 상황에 따라 오전 10시-11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날씨나 어린이집 행사, 현장학습,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었다. 연구현장 및 연구참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만 4-5세 혼합연령반의 하루 일과

시 간	구 분	
07:30 ~ 09:00	등원 및 맞이하기 통합보육	
09:00 ~ 09:30	오전 간식/화장실 다녀오기	
09:30 ~ 11:00	오전 자유 놀이	
11:00 ~ 12:00	바깥놀이(대체놀이)	텃밭 가꾸기 (주2~3회)
12:00 ~ 13:00	점심식사/화장실 다녀오기	
13:00 ~ 14:30	낮잠 및 휴식/자유놀이	
14:30 ~ 15:00	오후 간식	
15:00 ~ 16:00	오후 자유 놀이	
16:00 ~ 19:30	귀가 지도 및 연장반 보육	

본 연구는 만 4-5세 13명(만 4세 9명, 만 5세 4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유아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참여 유아의 개별적 특성

번호	이름	나이(성별)	텃밭 가꾸기에 대한 유아 특성
1	강나연	만 5세(여)	텃밭 활동에서 친구들, 동생들의 행동을 바로잡고 주도하는 모습 많이 보임
2	이아린	만 5세(여)	텃밭 가꾸기에서 필요한 요구 등을 교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함
3	임수향	만 5세(여)	텃밭 가꾸기에 관심을 많이 보임
4	정하진	만 5세(남)	텃밭 가꾸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함

번호	이름	나이(성별)	텃밭 가꾸기에 대한 유아 특성
5	고윤정	만 4세(여)	벌레를 무서워하여 텃밭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자연물을 좋아하여 열매, 식물, 작물들을 관찰과 모종삽으로 심기를 좋아함
6	구성호	만 4세(남)	텃밭 가꾸기 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며 곤충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함
7	송민정	만 4세(여)	텃밭 가꾸기를 좋아함. 벌레를 무서워하나 관찰하는 것을 좋아함
8	신유빈	만 4세(남)	텃밭에서 물주기를 좋아하고,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9	안호준	만 4세(남)	곤충에 관심 있고, 호기심과 궁금한 것이 많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텃밭 가꾸기에서 물주기를 좋아함
10	이정아	만 4세(여)	곤충에 관심이 많고, 텃밭 가꾸기에서 본인이 첫 번째로 하려고 함
11	임준호	만 4세(남)	곤충에 관심이 많으며 좋아함(특히 거미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음)
12	장준성	만 4세(남)	벌레 때문에 텃밭 가기 무서워함 호기심이 많고, 신기한 것을 보면 친구들에게 공유함
13	장하늘	만 4세(여)	벌레를 무서워해서 텃밭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친구들과 함께 작물에 물을 주는 활동을 하며 즐거워함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2021년 3월에 만 3세 유아반 누리보조 교사를 맡게 되었고, 2022년 만 4-5세 담임교사를 맡게 된 경력 1년 6개월 차 교사였다. 교사는 바깥 놀이와 산책, 숲 체험에 관심을 보이며 텃밭에서 유아들이 관찰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며 일지에 기록하였다. 교사는 텃밭을 통해 유아가 자연 속 다양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는 어린이집의 자연친화교육 철학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텃밭 가꾸기 좋아하셨고, 집 근처에 주말 농장에서 작물을 수확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텃밭 체험 학습을 자주 경험시켜 주셨고, 텃밭 활동이 즐거웠어요. 저는 바깥에서 놀기 좋아했어요. 어릴 때 자연은 즐거운 경험이었고, 자연과 함께하는 텃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자연친화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중략) 유아들이 텃밭 경험을 통해 전인 발달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사면담. 2022.08.08.)

## 2. 연구절차

연구참여자(교사와 만4-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만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캠코더, 스마트폰으로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놀이 양상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2년 8월 1주에 예비관찰 3회를 통해 본 관찰 시 유의점 등을 파악하였다. 본 관찰은 8월 2주부터 10월 4주까지 총 15회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료는 참여관찰, 영상녹화, 교사면담, 연구일지 및 연구자 저널, 유아와 관련된 문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된 패턴을 정리 및 요약하여 놀이 출현, 놀이 양상 등을 토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반복적인 검토와 협의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3〉 자료수집방법과 수집된 자료목록

자료수집유형	사용된 방법	자료수집분량
참여관찰 녹화영상	현장참여관찰 (스마트폰, 캠코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2~3회 관찰 전사본(총 15회)</li> <li>• 주 2~3회 관찰 영상자료(약 10시간)</li> </ul>
교사 면담 자료	오디오 면담 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2~3회 20~30분 면담전사본(총 10회)</li> </ul>
연구일지 및 연구자 저널 자료	연구일지 및 연구자저널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2~3회 연구일지 및 연구자 저널(총 15회)</li> </ul>
문서자료	수시로 관련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계획안(15주차), 어린이집 운영 안내서(1권)</li> <li>• 가정 연계 부모참여 활동사진, 텃밭 가꾸기 관련 유아 작품</li> </ul>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난 유아 놀이 양상을 탐구하였다. 유아는 텃밭 가꾸기를 하는 동안 텃밭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교감적 놀이’, ‘직관적 놀이’, ‘상상적 놀이’가 나타났다.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텃밭에서 유아는 또래 관계 속에서 자연과 정서적 교류와 감정을 공유하였다. 유아는 텃밭에서 자연과 만나며 오감각으로 직관적인 놀이를 경험하였다. 유아는 텃밭과 관련된 식물과 동물, 텃밭과 관련된 사물을 가작화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 1. 교감적 놀이

교감적 놀이는 텃밭 가꾸기를 경험하면서 유아의 감정과 느낌을 자연 또는 또래와 교류하면서 놀이로 전이되었다. 텃밭에 관심이 없던 유아는 등·하원 하면서 보았던 작물에 대해 교실에서 이야기를 하며 텃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쓰러진 옥수수를 걱정하고, 말

라버린 지렁이를 땅에 묻어주었다. 방울토마토의 열매가 초록색에서 빨갱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등원하면서 따온 빨갱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또래에 나누어 주었다.

### 1) 옥수수 병원놀이

유아들은 쓰러진 옥수수를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유아는 쓰러진 옥수수대를 세워주려고 모래를 뿌리고, 주변 나뭇가지를 세워 옥수수대를 지지하려고 하였다. 만 4세 유아는 짧은 나뭇가지를 땅에 꽂았는데 땅이 단단해 나뭇가지가 들어가지 않자, 만 5세가 꽃삽으로 구멍을 파기 시작하였다. 꽃삽으로 만든 구멍에 나뭇가지를 꽂는다. 만 4세가 가지고 온 나뭇가지는 길이가 짧아 세워지지 않자, 만 5세는 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쓰러진 옥수수를 세워준다. 아픈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처럼 유아는 옥수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옥수수대를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아는 쓰러진 옥수수대에 밴드를 붙여 주자는 의견을 내었다. 유아는 밴드를 교사한테 부탁하여 옥수수에 붙여주었다.

장준성: 선생님, 어린이집 올 때 봤는데 옥수수(대)가 옆으로 있는 거 같아요.

강나연: 옥수수(대)가 옆으로 쓰러진 거 같아. 아, 어떡해? 옥수수가 걱정돼~

장준성: (쓰러진 옥수수대를 보며) 바람이 불었나봐. 너무 불쌍해.

이아린: 내가 삽을 가져올게.

장하늘: (흙을 뿌려도 옥수수가 세워지지 않는다.) 흙이 안 파져요. 너무 흙이 딱딱해요. 힘들어.

이아린: 삽 가져 와.(삽으로 땅을 판다. 장준성이 가져온 짧은 나뭇가지를 꽂는다.)

장하늘: 들어간다. 언니~ 막대기! 긴 거로 해봐~

이아린: 밴드 붙여주자!

강나연: 넘어져서 옥수수가 아플 거 같아!

이아린: 이제 쓰러지지 않으면 좋겠다. 선생님! 밴드주세요. (유아관찰. 2022.08.10.)

유아는 쓰러진 옥수수대를 보고 아픔으로 공감하였다. 유아는 ‘밴드’를 통해 치유를 하는 병원놀이로 확장하였다. 신체적 상처에 대한 치유의 과정에서 ‘밴드’는 아픔을 없애주고, 옥수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였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경험(주관적 감정과 심리상태 등)을 마치 나의 감정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표현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이다(Rogers, 1957; 조신애, 2019 재인용).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 상황 등을 이해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원활한 관계를 유지 시켜 주는 능력으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장문희, 2018). 유아는 쓰러진 옥수수대의 감정, 상황 등을 이해하고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또래와 인

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2) 지렁이 장례식 놀이

텃밭에 물주던 유아는 햇빛에 말라버린 지렁이를 발견하였다. 말라 움직이지 못하는 지렁이를 불쌍하게 여겨 물을 주며 지렁이가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을 주어도 말라 죽은 지렁이가 움직이지 않자, ‘지렁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지렁이를 애도하듯이 땅에 묻어주었다.

임수향 : 어떻게 해? 지렁이가 안 움직여. 불쌍해.

송민정 : 진짜? 말랐어?

강나연 : 물을 줄까? (물을 지렁이 위에 뿌린다.)

고윤정 : 물을 주면 살아날까?

임수향 : 너무 불쌍해. 어떻게?

송민정 : 미안해, 지렁이야, 우리가 물을 안줘서 흠도 없고 지렁이도 죽었어.

송민정 : 전에 키우던 구피(물고기) 죽었을 때 아빠랑 흠 파고 물어줬어.

강나연 : 선생님~ 우리 지렁이 물어줘도 돼요?

송민정 : 아빠랑 흠 파고 물어주면서 기도도 했는데. 기도하면 구피가 안 슬퍼한대.

강나연 : 나 엄마랑 할머니한테 갈 때 꽃 가지고 가서 할머니 사진 앞에다 놓아 드렸어.

고윤정 : 꽃 저기 있는데. (텃밭 근처에 핀 들꽃을 가져온다.)

송민정 : 여기에 놓아주자. 지렁이야~ 슬퍼하지마. 우리가 기도해 줄게.

(유아관찰. 2022.09.27.)

말라 죽은 지렁이를 보고 유아는 물을 주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렁이가 움직이지 않자 ‘구피의 죽음 애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장례식 놀이로 전이되었다. 땅에 묻어주고, 꽃을 따서 애도하고 기도도 하면서 죽은 지렁이가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만 3-5세의 유아는 죽음을 가역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살아 있을 때처럼 계속 성장하고, 먹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공주’와 같은 이야기나 게임을 좋아하고, 주변의 모든 물건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물활론적 사고와 생사를 자신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의 보편성이나 비가역성 등을 이해하기 힘들다(정다빈, 2019).

## 3) 방울토마토 시장놀이

유아는 익지 않은 초록색 방울토마토를 먹었다. 초록색 방울토마토를 먹은 유아는 초록색 방울토마토가 빨갭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음을 교사와 또래가 알려준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기다림 속에서 방울토마토가 빨갭게 익자, 유아는 또래에게 방울토마토를 나누어주고, 시장놀이로 확장하였다.

강나연: (장하늘의 초록색 방울토마토를 따서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그거 먹으면 안돼!

빨갭게 익으면 먹을 수 있어.

장하늘: (맛있게 먹으며) 빨갭게?

교 사: 나연이가 말한 것처럼 초록색 방울토마토는 아직 익지 않았어. 며칠 기다려 주면 초록색이 빨갭게 변해서 방울토마토가 익을 거야.

장준성: 빨갭게 익으면 그뎨 따서 먹을 수 있어.

(중략)

신유빈: 어? 방울토마토가 빨갭게 되었네! (방울토마토를 따다.)

장준성: 진짜? 하늘아, 이리 와봐. 방울토마토가 빨갭게 익었는데 신유빈이 따버렸어.

신유빈: 하늘아, 여기(빨갭 방울토마토를 내민다.)

장하늘: 고마워. 먹어도 돼? (신유빈이 고개를 끄덕인다.)

송민정: 선생님, 이 방울토마토 팔아요.

교 사: 얼마예요?

장하늘: 천원이요. 선생님! 방울토마토랑 고추, 가지도 팔아요.

교 사: 그럼, 그럼. 너희들이 팔고 싶구나! (유아관찰. 2022.08.10.)

유아의 시장놀이를 연구한 임승렬과 김연미(2019)는 시장놀이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재미있는 놀이지만, 교사가 계획해 놓은 틀 안에서 시장 놀이가 이루어져서 제한된 경험과 사고파는 행위를 재현하는 의미 없는 흉내 내기의 한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텃밭 가꾸기에서 시장놀이는 방울토마토를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이 있는 확장된 놀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 2. 직관적 놀이

직관적 놀이는 유아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아의 선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놀이로 유아는 교실에서 수경 재배로 키우던 고구마를 텃밭에 심어 주고 싶어 하였다. 유아의 선경험을 토대로 교실에서 수경 재배한 고구마를 빗물통에 넣으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잡초와 작물이 비슷한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작물을 뽑기도 하였다. 유아는 텃밭에서 가꾸는 작물에게 이름 붙여 주는 것을 즐겨 하였는데, 작물의 시각적 특성

을 파악하고 인식되는 대로 이름을 붙여주었다.

### 1) 고구마를 빗물통에 넣어요!

교실에서 물에 넣어 관찰하던 고구마에 싹이 많이 자라고 뿌리가 길어졌다. 교사는 텃밭에 식물을 보며, 수경재배로 키우는 교실의 고구마를 텃밭에 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유아가 교실에 있던 고구마를 텃밭에 심으려 하였는데, 텃밭에 물 주려고 받아놓은 빗물통에 고구마를 넣는다. 고구마가 물속에 있어서 유아는 물에 넣어주면 더 자란다라는 직관적 사고를 하였다.

장준성: (교실에서 수경재배하는 고구마를 보며) 선생님! 고구마 싹이 많아요.

교 사: 고구마가 잘 자라서 뿌리도 길어지고, 잎도 많아졌네.

강나연: 선생님! 고구마를 텃밭에 심을 수 있어요?. 저번에 토마토 심었는데...

교 사: 고구마를 텃밭에 심을 수 있어요. (송민정이 교실에서 고구마를 가져온다.)

고구마를 어떻게 심으면 될까?

송민정: (빗물통을 보며) 여기에 심어요. (고구마를 빗물통에 넣는다.)

임수향: 여기 흙에 심어야지!

송민정: 아니야. 여기 심어도 돼! (유아관찰. 2022.08.11.)

유아는 교실에서 수경재배로 키우던 고구마가 커지자, 텃밭에 심기로 하였다. 하지만, 유아는 수경재배로 고구마를 키운 경험에 의해 빗물통에 키울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사고하였다. 직관적 사고는 문제해결에서 분석, 종합과 같은 논리적 추론 방법을 따르지 않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나 조건만으로 문제 해결의 단서나 해결 방법 또는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사고를 의미한다(오향숙, 2006). 유아는 텃밭에서 수경재배 할 수 있는 곳은 빗물통이라는 주어진 조건만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인지하였다.

### 2) 열무와 잡초가 비슷해요!

유아는 열무와 고구마 주변에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고 궁금해하였다. 새로운 식물이 잡초라는 것을 알고 유아는 잡초를 뽑으며 흥미를 느꼈다. 시각적 감각과 모양의 유사성으로 유아는 열무잎, 고구마잎, 잡초를 구별하기 어려워하여 직관적으로 작물을 뽑았다. 잡초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만 5세 유아는 만 4세에게 잡초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 서로 알려주고 이해하여 잡초 뽑기에 흥미가 생긴 유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송민정: (열무 옆에 비슷한 식물을 관찰하며) 선생님, 이거 뭐예요?

교 사: 이거는 잡초라고 하는 거야. 이 잡초가 있으면 열무가 잘 자랄 수 없어.

송민정: 이거 어떻게. (열무를 뽑았다.)

강나연: 선생님, 이거 고구마 아니에요?

교 사: 그건 고구마 옆에 있는 잡초야.

고윤정: 선생님, 이건 잡초예요?

교 사: 그건 열무야. (고윤정이 열무를 뽑아버린다.)

강나연: 그건 잡초가 아니잖아! 이게 잡초야~! 선생님~! 여기 잡초 많아요!

(유아관찰. 2022.09.06.)

유아는 열무, 고구마, 잡초를 구별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나 교사에게 확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식물의 색, 모양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반복하여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잎의 모양, 색 등을 다시 탐색하면서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유아는 열무, 고구마, 잡초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잡초를 뽑기 위해 직관적 사고로 작물을 뽑는 시행착오를 한다. 이러한 지각적 사고는 유아가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며, 냄새 맡는 경험을 통해 지각적 사고를 발달시킨다. 자극이 주어진 순간 즉각적 반응이 가능한 경험도 지각적 사고에 포함이 된다. 즉, 유아는 잡초, 열무, 고구마 잎을 구별하지 않고 즉각적 반응에 의해 잡초 뽑기 놀이를 하였다. 유아는 점차 사물 전체에 대한 지각적 이해에서 벗어나 사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로 다름을 비교하여 분석적 사고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인다. 교사나 또래에게 질문을 하면서 작물과 잡초를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분석적 사고는 지각적 사고에 비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더 선택적이고 확산적으로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류금자, 2018).

### 3) 텃밭 작물에 이름을 붙여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올 때 유아는 작물에 관심을 보이며 또래에게 작물의 특성을 이야기하였다. 열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아는 열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벼 주변에 자란 강아지풀을 ‘햇도그 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유아는 작물의 특성과 이름을 알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놀이를 하였다.

강나연: 애들아, 벼의 색이 변했어?

안호준: (벼 주변에 자라고 있는 강아지풀을 보며) 햇도그에 털이 난 거 같아. 햇도그 털.

그래서 변한 거 아니야?

신유빈: 햇도그 털이면 햇도그 우리 먹을 수 있다고?

장준성: (벼를 보며) 애들아, 이리와 봐! 애는 뽕족이 같지 않아? 뽕족이라고 부르자~

고윤정: (당근을 보며) 애는 당당이라고 하자~

이정아: (열무를 보며) 이건 무무라고 하자~

임준호: 무무? 이건 열무잖아? (시금치를 보며) 이거는 금치? 하하!

이정아: 금치가 뭐야? 하하! (유아관찰, 2022.09.01.)

유아는 ‘강아지풀-햇도그털’, ‘벼-뽕족이’, ‘당근-당당이’, ‘열무-무무’, ‘시금치-금치’라고 이름붙이기 놀이로 나타났다. 작물과 식물의 시각 특징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유희의 말놀이처럼 이름 붙이기 놀이가 이루어졌다. 이름은 유아가 인쇄글자에 대해 가지는 경험들 중에서 의미있는 경험이다. 유아의 언어발달(읽기 쓰기 학습)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시작한다. 이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게 해주고 개별적 특성을 적절하게 나타내주는 도구이다(임양금, 2005). 텃밭 가꾸기를 통해 식물과 작물에 이름 붙이기 놀이는 식물과 작물의 독특한 개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텃밭에서 작물의 이름 붙이기 놀이는 유아들이 서로 반복, 확장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말 리듬 놀이 형태로 이루어졌다. 말 리듬은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소재가 되어 노래처럼 불리는 것으로 음정 없이 언어와 잘 조화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방은영, 2019). 유아는 또래와 함께 식물과 작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언어적 리듬감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놀이가 이루어졌다.

### 3. 상상적 놀이

텃밭 가꾸기 경험 속에서 유아는 대상, 장소, 상황, 사물 등을 가작화하여 놀이가 이루어졌다. 텃밭에 꽂혀 있는 꽃삽에 물을 주며 꽃삽을 미끄럼틀로 가작화하여 ‘꽃삽 미끄럼틀 놀이’를 하였다. 텃밭 가꾸기에서 늘 빠지지 않고 유아가 경험하는 텃밭 작물에 물주는 즐거운 물놀이를 전이되어 이루어졌다. 텃밭에 물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물이 흘러내려 웅덩이가 만들어지자, 유아는 강, 냇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관심을 나타냈다. 유아는 바닥에 물을 붓고 물길을 만들어 ‘홍수’ 놀이로 즐거움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홍수’에서 ‘자연재해’로 확장되면서 유아는 ‘기자 놀이’로 놀이의 흐름이 확장되었다.

#### 1) 꽃삽 미끄럼 놀이

유아는 텃밭 가꾸기 과정에서 텃밭에 있는 작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유아가 텃밭에 있는 꽃삽에 물을 주며 유아의 미끄럼 놀이 경험을 상상하며 미끄럼 놀이를 표상하였다. 꽃삽에서 물이 미끄러져 흘러 내려가자 미끄럼 탄다고 즐거워하며 텃밭에 물주기보다 꽃삽에 물을 흘러내리면서 미끄럼 놀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임수향: 물 여기에 줘! 여기에~

장준성: 그거 삽에 즐거야? 우와! (꽃삽에 물을 흘러내리면서) 물이 미끄럼처럼 타고 내려간다~  
재밌다! 놀이하는 것 같은데? 엄청 재밌어!

신유빈: 어? 물 다 따랐네?

임수향: 내가 물 줄게.

안호준: 물이 생겼네!

장준성: (물을 주며) 나 또 미끄럼 타는 것처럼 해봐야지~ (유아관찰. 2022.08.18.)

유아는 자신의 놀이 경험을 꽃삽을 통해 표상하여 나타냈다. 조예진(2017)의 유아에 대한 상상 놀이 연구를 통해 유아의 상상 놀이를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유아들만의 또래문화 만들기’로 분류하였다. 유아는 상상 놀이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재현하면서 현실에 대한 지식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물이나 사건을 만들어내며 현실 너머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조예진, 2017). 유아가 경험한 미끄럼 놀이를 꽃삽으로 표상하면서 즐거움을 나타냈다. 유아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놀이를 사물을 가작화하여 상상 놀이로 발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2) 텃밭 홍수 놀이

텃밭에 물을 주며 유아는 서로 물을 나누어주고 물을 얼마만큼 주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텃밭 작물에 물을 주며 넘치면서 흘러내리는 물에 관심을 가졌다. 물이 계속 흘러내려 물웅덩이가 되어 고이는 현상을 탐색하면서 유아는 ‘강’이나 ‘냇물’이라고 표현하며 흥미로워하였다. 유아는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상황을 관찰하고, 홍수가 났다고 자연재해의 사건을 알리는 기사 놀이로 전환하여 상상 놀이가 이루어졌다.

장준성: (텃밭에 물을 주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우와! 냇물가야! 냇물!

송민정: 우와! 강이다! 강!

강나연: 선생님! 이것 좀 봐요! 강 같아요! 강! 우와!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장하늘: 물이 내려가고 있어!

강나연: 또 물이 온다! 흙탕물이 온다!

장하늘: (흐르는 물 위에 나뭇가지를 놓으며) 오!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송민정: 우와! 물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강나연: 어? 지금 홍수가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정: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가자! (유아관찰. 2022.09.26.)

유아는 텃밭 가꾸는 과정 속에서 물주기 경험이 물웅덩이를 만들고, 물이 넘쳐 흘러가자, 강물과 냇물로 가작화하고 물이 더 많아지자 홍수놀이와 기차놀이를 확장되었다. 놀이가 전이되고 확장되면서 유아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고, 유아가 주체적으로 상상하여 상황을 놀이화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놀이 양상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자발성에 의한 교감적 놀이, 직관적 놀이, 상상적 놀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텃밭 가꾸기에서 나타난 놀이는 교감적 놀이였다. 텃밭 가꾸기에서 유아가 느끼는 감정을 또래와 교류하고 놀이로 전이하였다. 쓰러진 옥수수대를 걱정하고, 말라버린 지렁이를 땅에 묻어주었다. 초록색 방울토마토의 열매가 빨갭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빨갭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또래와 나누며 놀이가 이루어졌다. 유아는 햇살과 바람, 하늘과 향기 등을 제한 없이 감각으로 느끼며, 성취감, 경이로움, 기쁨, 즐거움, 실패, 좌절, 슬픔 등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한다(길영신, 2021). 자연친화경험이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강은숙(202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임경아(2012)의 연구 결과에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흙, 나무, 꽃, 열매를 주제로 자연과 친해지고 유아는 오감으로 교감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을 소중히 다루고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가 확장되어 넓은 의미의 자연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유아는 쓰러진 옥수수대를 보고 아픔을 공감하고, 유아의 ‘밴드’ 경험을 통해 치유의 병원 놀이로 확장되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상황 등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원활한 관계를 유지 시켜 주는 공감 능력은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일어난다(장문희, 2018). 유아는 쓰러진 옥수수대의 상황 등을 이해하고 빠르게 세워주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래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햇빛에 말라버린 지렁이를 발견하고, 지렁이에게 물을 주지만 움직이지 않자, 지렁이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땅에 묻어주는 장례식 놀이가 이루어졌다. 유아는 텃밭을 가꾸며 주변 자연환경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하고, 식물을 돌보고 가꾸며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형성한다. 만 3-5세 유아는 죽음을 가역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

이 죽게 되더라도 살아 있을 때처럼 계속 성장하고, 먹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한다. 주변의 모든 물건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물활론적 사고와 생사를 자신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의 보편성이나 비가역성 등을 이해하기 힘들다(정다빈, 2019).

방울토마토의 수확시기를 방울토마토의 색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유아는 빨강계 익었을 때, 방울토마토를 수확하여 또래에게 나누어주고, 시장놀이를 확장하였다. 유아의 시장놀이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재미있는 놀이이지만, 교사가 계획해 놓은 틀 안에서 시장놀이가 이루어져서 제한된 경험과 사고파는 행위를 재현하는 의미 없는 흉내내기의 한계를 갖는다(임승렬·김연미, 2019). 하지만, 텃밭 가꾸기에서 이루어진 시장놀이는 유아가 주체가 되어, 방울토마토를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수확하여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기쁨을 넘어서 자발적 참여의 시장놀이를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둘째, 유아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감각적으로 직관적 놀이가 이루어졌다. 직관적인 놀이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아의 선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놀이로 교실에서 수경재배로 키우던 고구마를 텃밭에서 키우려고 할 때, 빗물통에 고구마를 넣는 직관적 놀이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아는 작물과 잡초가 유사한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작물을 뽑기도 하였다. 유아는 텃밭에서 가꾸는 작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놀이를 즐겨하였다. 작물의 시각적 특성을 파악하여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놀이가 나타났다. 유아는 감각적으로 자연물을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으면서 자연물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함을 느껴 감정이입을 한다(조형숙, 2005). 유아는 감각적으로 작물의 특성을 파악하다가, 점차 작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작물과 잡초를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석적 사고는 지각적 사고에 비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더 선택적이고 확산적으로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류금자, 2018). 직관적 놀이를 통해 유아는 점차 분석적 사고로 발달하는 과정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텃밭 가꾸기에서 유아는 대상, 장소, 상황, 사물 등을 가작화하는 상상적 놀이가 이루어졌다. 텃밭에 꽃혀 있는 꽃삽에 물을 주며 꽃삽을 미끄럼으로 가작화하여 ‘꽃삽 미끄럼 놀이’를 하였다. 유아는 자신의 미끄럼 놀이 경험을 꽃삽을 통해 표상하였다. 조예진(2017)은 유아 상상 놀이를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유아들만의 또래문화 만들기’로 분류하였다. 유아는 상상 놀이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재현하면서 현실에 대한 지식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물이나 사건을 만들어내며 현실 너머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조예진, 2017). 텃밭가꾸기에서 물을 주던 유아는 물길을 만들어 홍수놀이를 즐거움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홍수에서 자연 재해로 확장되면서 기사놀이를 놀이의 흐름이 전이되었다. 유아는 자연을 호기심 있게 바라

보며 심도 깊은 질문으로 확장해나가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김은숙, 2014). 유아는 텃밭을 가꾸며 다양한 동·식물 생명체, 자연물과 만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경험적 지식을 구성해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는 감정이입, 상상, 창조, 공감,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 간다는 김정은(2016)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텃밭가꾸기에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롭게 텃밭 가꾸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가 놀이 상황 속에 교사에게 요구를 하면, 교사는 적절하게 지원하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교사는 자연을 유아 자신의 감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적인 자유와 여유를 제공하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김지혜·허윤정·조형숙, 2007).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텃밭 가꾸기에서 유아의 자발성을 기반한 교감적 놀이, 직관적 놀이, 상상적 놀이가 발견되었다. 텃밭 가꾸기는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유아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아 중심의 텃밭 가꾸기는 유아의 놀이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 텃밭 가꾸기를 통해 유아는 문제나 어려움에 도전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교사 중심의 텃밭 가꾸기는 일회적·관광적 체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유아 중심의 텃밭 가꾸기는 변화무쌍한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의 기간적 한계가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기적 텃밭 가꾸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연구참여자가 혼합연령(만 4-5세) 유아로 이루어져서 또래간 협력 등의 친사회적인 상호작용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단일연령으로 구성된 유아반 대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생존기(1년 6개월 경력)의 혼합연령 반 담임교사로 텃밭 가꾸기 시, 식물의 변화, 동물 관찰 등의 과학적 탐구 중심의 상호작용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경력 교사의 텃밭가꾸기 상호작용 및 지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텃밭 가꾸기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 지원을 위해서는 교사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텃밭 가꾸기에서 다양한 유아 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사의 민감한 태도와 적극적 놀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미경 (2016). 텃밭 가꾸기와 연계한 요리활동이 영아의 식습관과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ang, M. K. (2016). The effect of cooking activities linked to gardening on infants' eating habits and playfulness. Ch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강은숙 (2023). 자연친화적 경험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적용 사례 및 효과.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Kang, E. S. (2023). Application cases and effects of early childhood art education program based on nature-friendly experience. Joongb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권영수 (2012). 식물재배활동이 유아들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won, Y. S. (2012). Effects of plant cultivation activitie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길영신 (2021). 자연친화적 숲놀이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사회기술성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il, Y. S. (2021). The effect of nature-friendly forest play activities on the social skills of 5-year-old children. Joongb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김미숙 (2001). 교사가 지각하는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M. S. (2001). A study on the teacher's perceived playfulness of 5-year-old childre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김민정 (2022). 숲놀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69, 77-104.
- [Kim, M. J. (2022).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forest pla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9, 77-104.]
- 김은숙 (2014). 실외놀이 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과 자연친화적 태도의 차이.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E. S. (2014). Differences in children's play behavior and nature-friendly attitudes according to outdoor play environment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김정은 (2016). 자연물을 활용한 몬테소리 감각교구의 변형 및 응용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6(1), 205-226.
- [Kim, J. E. (2016). Effects of transformation and application activities of Montessori sensory aids using natural objects on children's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16(1), 205-226.]
- 김지혜·허윤정·조형숙 (2007). 자연친화교육활동에서 유아교사의 교수행동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307-340.
- [Kim, J. H., Heo, Y. J. & Cho, H. S. (2007). Analysis of teaching behavior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nature-friendly education activities.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2(5), 307-340.]
- 류금자 (2018). 판게임 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Ryu, K. J. (2018). Effects of board game activity on cognitive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5-year-old children. Joongb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박미현·황희숙·황연주 (2021). 융합인재교육(STEAM) 기반의 텃밭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2(4), 1-22.

- [Park, M. H., Hwang, H. S. & Hwang, Y. J. (2021). The impact of convergence talent education (STEAM)-based garden activities on children's creativity and nature-friendly attitude. *Journal of Cognitive Development Intervention, 12(4)*, 1-22.]
- 방은영 (2019). 말 리듬놀이에서 나타난 유아의 즐거움에 관한 탐색. **어린이미디어연구**, 18(3), 311-336.
- [Bhang, E. Y. (2019). Exploration of the joy of preschoolers in speech rhythm play. *Children's Media Research, 18(3)*, 311-336.]
- 서주형 (2017). 텃밭 가꾸기를 활용한 자연명상놀이가 만 3세 유아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eo, J. H. (2017). The impact of nature meditation play using gardening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3-year-old childre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선수민 (2022). 만 3세 유아의 텃밭 놀이 활동이 식습관 및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Seon, S. M. (2022). The effects of garden play activities on eating habits, self-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in 3-year-old children. Joongb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성정민·박용한 (2016). 텃밭 가꾸기 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와 과학적 탐구 능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5(4), 205-225.
- [Seong, J. M. & Park, Y. H. (2016). The impact of gardening activities on children's nature-friendly attitude, scientific inquir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Child Education, 25(4)*, 205-225.]
- 안지성·김정신·조희숙 (2011).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텃밭 가꾸기 활동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327-361.
- [An, J. S., Kim, J. S. & Cho, H. S. (2011). The meaning of gardening activities in kindergarten.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6(6)*, 327-361.]
- 오향숙 (2006). 유아의 직관적 사고에 기초한 확률 지도 방안 모색.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Oh, H. S. (2006). A method for teaching probability based on children's intuitive thinking. Sill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윤구병 (2002). 스스로 살아남기, 더불어 살아남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창립총회 및 기념 강연 자료집**, 14-30.
- [Yoon, G. B. (2002). Survive yourself, survive together. *Korea Society of Ecological Early Childhood Education Inaugural Meeting and Commemorative Lecture Materials*, 14-30.]
- 이미선 (2011).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M. S. (2011). The effect of parents' play beliefs and playfulness on children's playfulness. Sungky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이석주 (2022). 영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의 자율성 지지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J.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playfulnes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이은성 (2018). 생태환경문제와 교회학교 어린이 신앙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56, 73-100.
- [Lee, E. S. (2018). Ecologic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for children in church schoo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73-100.]
- 이은하 (2013). 유아의 기질, 교사-유아 관계, 친사회적 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E. H. (2013).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prosocial

- behavior on children's playfulness. Kyungso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이정규·정희영 (2012). 주 5일제에 따른 주말교회학교 유아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30, 225-254.
- [Lee, J. K. & Jeong, H. Y. (2012). Development of a weekend church school early childhood ecologic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5-Day week syste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225-254.]
- 이지영·조부경 (2017). 가정과 연계한 텃밭 활동 활동이 유아의 인성 및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연구**, 19(1), 1-26.
- [Lee, J. Y. & Cho, B. K. (2017). The Effect of Family Gardening Activities on Children's Personality and Nature-Friendly Attitud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9(1), 1-26.]
- 임경아 (2012). 자연과 친해지고 교감하며 탐구하기 접근의 자연친화적 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와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m, K. A. (2012). The effect of nature-Friendly activities in the approach of getting to know, sympathize with, and explore nature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friendly attitude and scientific inquiry ability.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임승렬·김연미 (2019). 유아의 시장놀이 경험과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675-703.
- [Lim, S. R & Kim, Y. M. (2019). Experience and meaning of market play experienced by childr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9), 675 -703.]
- 임양금 (2005). 유아의 이름글자를 활용한 균형 잡힌 문자언어 접근법의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im, Y. G. (2005). The effect of a balanced text language approach using children's name letters.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임재택·하정연·조채영·노진형·홍정애·강현진·김미옥 (2000). **선생님! 텃밭 가요: 선생님들이 직접 쓴 텃밭 활동 프로그램**. 공동체.
- [Lim, J. T. , Ha, J. Y., Cho, C. Y., Noh, J. H., Hong, J. A., Kang, H. J. & Kim, M. Y. (2000). *Teacher! Let's go to the garden.: A garden activity program written by teachers themselves*. Community.]
- 장문희 (2018).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 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ang, M. H. (2018). The effect of empathy education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on children's empathy abil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정관순 (2011).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eong, G.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social abilities. Kyu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정다빈 (2019).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죽음 교육에 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eong, D. B. (2019). A qualitative study on early childhood death education using picture book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정미숙 (2021). 코로나19 환경에서 홈가드닝 활동이 초등학생의 식물관심도, 정서안정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Jeong, M. S. (2021). The effect of home gardening activities on plant interest, emotional stability

- and self- esteem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COVID-19 environment. University of Seou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s Thesis.]
- 정희영·황세희 (2019). 종교 관련 숲 · 생태 유아교육 연구 동향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58, 339-372.
- [Jeong, H. Y. & Hwang, S. H. (2019). Analysis of religion related forest ecolog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trend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8, 339-372.]
- 조미영 (2021).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67, 415-447.
- [Cho, M. Y. (2021).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415-447.]
- 조신애 (201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 뉴스 리터러시 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 S. A. (2019). The effect of news literacy education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using storytelling on young children's empathy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조예진 (2017). 유아의 상상놀이에 대한 교사의 상호작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 Y. J. (2017). A study on teacher's interaction on children's imaginative pla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조형숙 (2005). 유아를 위한 자연친화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유아교육연구**, 25(5), 343-366.
- [Cho, H. S. (200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ature-friendly education programs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5(5), 343-366.]
- 최민수·정영희·김정옥 (2012). 유치원에서의 꽃과 채소 가꾸기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2, 281-309.
- [Choi, M. S., Jung, Y. H. & Kim, J. O. (2012). The effect of flower and vegetable gardening activitie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in kindergarten. *Korean Early Childhood Care*, 72, 281-309.]
- 홍은주 (2005). **유아를 위한 자연친화교육**. 태영.
- [Hong, E. J. (2005). *Nature-friendl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aeyoung.]